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3, 요한계시록 7장, 무리, 8장, 마지막 봉인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13회기 요한계시록 7장의 군중과 8장 마지막 인봉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앞서 읽은 9절부터 우리는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룹이 144,000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구약성서의 군사 이미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제 그 언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 적용되어 그들을 나가서 싸우는 강력한 군대로 묘사합니다. 6장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침을 받고 보호를 받은 이 강한 군대는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는 질문에 큰 군대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고통받는 신실한 증언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9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무리, 곧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그룹은 누구이며 첫 번째 그룹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두 그룹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별개로 유지됩니다. 설명된 방식의 대조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 그룹은 12지파 각각에서 12,000명씩 명확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결국 144,000명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룹에는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번호가 지정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명시적으로 번호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누구도 그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번호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공정하게 두 개의 개별 그룹으로 서로 구분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우리가 말했듯이 144,000명이 장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44,000명은 이제 어린 양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는데, 이는 4장과 5장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동일한 장면, 즉 보좌실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왕좌실에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최종 구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7장은 성도들의 질문, 즉 신실함으로 인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부르짖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봅니다. 7장의 이 부분에서 그들은 최종 운명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과 그분의 보좌 앞과 하늘 뜰과 하늘 보좌실에서 어린양 앞에 섰는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질문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7장의 그룹과 완전히 다른가요? 그리고 다시 처음 읽을 때에도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보좌 앞에서 있는 하늘의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같은 집단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덴티티를 암시하는 듯한 이 점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본문에서 요한이 듣는 것과 요한이 보는 것 사이의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5장에서 소개된 것과 동일한 대조입니다. 이제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말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두어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무엇인가를 듣다가 돌아서서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가 들었던 것을 더 깊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가 보고 듣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 단지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뿐이다.

다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하늘 보좌실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5장에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온 우주를 두루 다니며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울음을 중단하고 그에게 이르되,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합당한 이가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보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무엇을 봅니까?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양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본다. 매우 다른 두 인물과 이미지, 사자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요한은 분명히 두 명의 다른 인물, 두 명의 다른 메시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맥락을 보면 그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그가 보고 듣는 것이 서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이기는 사자이고, 그가 듣는 것은 이기는 사자이지만, 그가 보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가 어떻게 이겼는지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이깁니다.

이는 다시 7장의 시작 부분에서 강력한 군대가 승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요점은 요한이 듣고 보는 것이 정확히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만 서로를

상호 해석하는 다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요한이 듣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은 4절에서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4,000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큰 보좌가 있고

자, 이것이 John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약 144,000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강한 군대로 묘사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요한이 구약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일종의 유형론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요한이 듣는 것, 즉 144,000명의 강력한 군대는 이제 그가 본 것, 즉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더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집단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들은 지상의 관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양처럼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증언을 통해 전투를 벌이는 강력한 군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이제 같은 무리를 하늘의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보상을 받았으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상징주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셀 수 있는 그룹과 셀 수 없는 그룹 사이의 모순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John은 동일한 그룹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기 위해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가서 싸우는 지상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그룹을 상상합니다. 그는 같은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를 거두고 이제 하늘의 상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사실은 9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무리도 결국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흰옷이 순결과

정의, 그리고 아마도 승리를 암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이제 그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더해 줄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막강한 군대가 이제 그들의 고난과 신실한 증언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분리된 그룹이 아니라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각 지파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와 방언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왜 요한이 9절에서 이 무리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로 묘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이 문구가 일곱 번 다시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언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일곱 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들을 이제 다시 하늘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수많은 무리로 묘사합니까? 아마도 한 가지 이유는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속한 한 무리의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특히 2장과 3장의 두 교회에 대해 거의 심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과 박해의 상황에서 고통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히 하찮은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그들을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하찮은 소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단지 로마 제국의 번덕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비밀 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수많은 대중의 한 가지 기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의 이 언어가 구약의 배경과도 공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면 요한은 대부분의 이야기, 특히 예언 문학을 가정하지만 요한은 예언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출애굽 이야기를 가정합니다. 그는 창조 이야기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셀 수 없는 무리나 군중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그에게서 큰 나라가 나올 것이며 결국 땅의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거듭거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전반에 걸쳐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에서 그 약속이 반복될 때, 아브라함의 씨와 그의 후손이 어느 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질 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 번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많아질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3장과 16절은 그 개념이 처음으로 반복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6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가 먼지의 얼룩까지 셀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는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수만큼 많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자손이 사대 만에 여기서 돌아올 것이라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사실은 15절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이라고 했습니다. 15절 5절입니다. 그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어 보라 하시니라 네가 셀 수 있거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22장. 그리고 17절.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네 자손은 적들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 또는 그의 후손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 먼지의 모든 것을 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수만큼 많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John이 여기서 그리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이미지는 모두 구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형상과 그 수효,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는 모두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구약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이며 둘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이미지에서는 John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12장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아브라함 자신의 물질적 씨가 별보다 많고 그 수가 너무 많아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을 어떤 의미에서 재해석하고, 이제

그것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으로 구성된 그룹에 적용합니다. 요한이 처음 여덟 구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언어를 취하여 그 수를 세어 그들의 군사력을 결정하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이 일에도 똑같이 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요한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궁극적인 성취를 다음에서 발견합니다. 그 큰 무리는 육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요점은 이 두 이미지, 즉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의 144,000명과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위하여.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어 그 후손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제가 읽은 몇 가지 본문, 특히 마지막 본문은 그것을 적들에 대한 그들의 승리, 특히 창세기 22장과 연관시켰습니다. 이제 수많은 무리가 그들의 신실한 고난의 증거를 통해 그들의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언어와 족속과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미 언급한 흰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아마도 군사적 승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도 초막절의 특징이라고 제안했으며, 이 장면은 레위기에서 기념되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 주는 초막절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리고 여기서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출애굽의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단순히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막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바로 거기에 삭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 구절인 9절에서 큰 환난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큰 무리가 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더라. 실제로, 요한이 천사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하는 본문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천사는 마침내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하였으며, 이는 다시 순결과 의를 상징하며 이제는 아마도 승리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이건 다른 곳에서 보세요. 나는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환란일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많은 기독교 해석자들은 이것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특정 기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7년 기간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주곡으로서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특정 기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종합해보면 대환란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전체 기간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 고난의 기간으로 묘사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시대는 로마와 같은 지배적인 제국의 손, 즉 짐승의 손에 고난과 심지어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시도를 자극합니다. , 그래서 아마도 대환란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전체 기간,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가 존재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사람들은 이미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환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로마제국의 손과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티파스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손에 고통을 겪었고, 적대적인 로마 제국 앞에서 충실한 증인으로 인해 요한이 확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대환난은 아마도 하나의 마지막 기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누군가는 이 기간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마지막 환난의 쏟아져 나올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때 끝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그러나 동시에 대환란이 실현되는 것은 아마도 1세기부터 시작하여 로마제국 하에서 박해가 시작된 때부터, 어쩌면 도미티아누스 이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쓰여졌다면 아마도 네로 때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로마 통치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과 로마 치하의 박해로 시작되는 이 전체 기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절정에 달할 이 환난 기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전체가 대환란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환난의 기간에서 승리하여 나타나 상을 받고 하늘에서 있습니다.

이제 이 장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은 이 이벤트가 언제 발생하는지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그것들이 배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것이 충실한 고통받는 사람들의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증언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즉시 그들의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를 들어 두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약속된 대로 이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충실한 백성과 함께 하늘 보좌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늘 보좌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맨 끝, 맨 마지막 두세 절, 세 절에서 어떤 의미로 부르는 노래가 있거나 적어도 시적

또는 찬송가 형식으로 일련의 대사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

그리고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시며 그들 위에 장막이나 장막을 치시리니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해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고 어떤 뜨거운 열기도 그들 위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에 계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들을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수한 무리로 묘사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최종성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최종적인 완전한 집단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둘째, 제가 방금 읽은 본문 중 일부는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면 이것은 일종의 구약성서 본문의 모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면 이와 같은 본문이 다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있는 어린양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관계에서 자신의 처소를 세우실 것이며 그의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21장 3절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의 장막과 장막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는 일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날 더 완전한 묘사를 기대하면서 이미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창조를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1장과 22장에서 땅에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마지막 유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스냅샷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죽고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즉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환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실하여 지금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최종 장면일 것입니다. , 이 수많은 무리,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도달할 때 더 자세히 선택되고 설명될 새로운 창조인 그들의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7장의 요점은 환난의 기간 동안과 이 땅과 사악한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간 동안, 그리고 아마도 그 심판의 기간을 이끄는 역할을 할 다른 제국에 대한 심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이르면 누가 이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6장에서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설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며, 인침을 받고 보호를 받는 자들이며, 나가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성취하는 강력한 군대로 묘사되는 자들입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과 전쟁에 나가지만, 그들은 고통받는 증언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받는 신실한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며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리라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두고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유업, 즉 새 창조 안에 있는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

그러므로 그들은 보상을 받고 정당함을 입증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판의 장면을 보았으며 이제는 최종 구원의 장면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 존은 단순히 다른 이미지와 다른 관점을 사용하여 유사한 사건, 비슷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서술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존은 이미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과 악한 인류에 대한 현재의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그들의 고통받는 증인의 성격을 묘사함으로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물러서서 다시 한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7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것은 그것이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입니다. 적어도 두 교회에 대해, 그리고 또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몇몇 교회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나 증거 부족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교회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장은 인내하라는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실제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고난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증언을 통해 승리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들이 인내한다면 그 결과 언젠가는 보상을 받고 충실하게 설 것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하찮은 소수가 아니라, 로마제국의 눈에 아무리 많이 보이더라도, 그들은 실제로는 큰 무리로 나타나서 승리하고, 인내한다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언급한 많은 교회들이 반대쪽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 승리하지 못하는 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회개하고 그것이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증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8장은 7장에 이어 6번 인장과 7번 인장 사이의 일종의 막간이므로 8장은 이제 인장 순서를 재개합니다. 언급할 다른 것, 환상이나 막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여러분이 봉인과 일어나는 모든 악과 모든 혼돈과 심판의 환상, 때로는 봉인을 읽을 때입니다. 거의 말 그대로 짧은 유예 역할을 하고 행동 속도를 늦추며 다음 번 물개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7장의 막간 기능은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6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심에 누가 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 나오는 내용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신학적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과 사악한 재앙 가운데서 일종의 유예나 잠시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봉인 순서가 재개되는 8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7장이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누가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8장과 9장에 설명된 나팔 재앙이 인 맞지 않고 7장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표적이 된다는 것을 8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현재 진행 중인 재앙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결과, 이제 우리는 재앙의 순서가 재개되겠지만 8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진 후에야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인인 일곱째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후에 이것은 일곱 개의 나팔의 순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8장에 나오는 일곱째 봉인에서 흥미로운 점은 봉인이 마침내 열렸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전에 저는 8장과 9장을 읽고 싶습니다. 먼저 8장을 읽은 다음 다시 돌아가서 일곱 번째 인이 무엇인지 답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천국에는 30분 동안 침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열려진 다른 여섯 개의 봉인과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8장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땅에 던져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푸른 풀도 모두 타 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바다 속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의 이름은 썩(썩)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었고, 그 쓴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피해를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라. 낮의 3분의 1은 빛이 없었고, 또한 밤의 3분의 1도 빛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는 다른 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9장은 트럼펫 순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챕터를 나누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처음 네 마리의 말, 즉 처음 네 인이 나머지 세 마리에서 나온 것처럼 다음 세 나팔은 처음 네 마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8장의 처음 네 나팔은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고, 9장은 마지막 세 나팔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인과 마찬가지로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은 막간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여담이 아니라 8장과 8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자세히 해석하기 위한 실제 기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9. 비전의 서술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팔 7장과 9장은 여섯째 나팔로 끝날 것입니다.

나팔 7장은 실제로 나중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마침내 울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일곱째 인은

8장의 시작 부분에서 마침내 풀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상한 점은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지금쯤 이해하셨겠지만, 우리는 아마도 그 30분을 문자 그대로의 30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계를 차고 있다면 분침이 문자판의 반쯤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계, 그러면 이번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30분은 아마도 의미심장하지만 제한적인 것,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을 다시 제안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왜 30분 동안 침묵이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인장의 내용이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6개의 인을 읽으면 매우 구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환상인 인 5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로마제국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하고 경건치 않으며 우상숭배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봉인이 열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봉인 7번이 실제로 우리가 말했듯이 계속 꺼내는 망원경처럼 각 섹션이 그 안에 다른 섹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봉 번호 7이 실제로 그 안에 다음 일곱 개의 나팔을 모두 담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침묵을 봉인의 일부로 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논평에서 이 3가지를 제안했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저는 단순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3가지 해결책 또는 가장 일반적인 3가지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침묵이 단순히 행동에 극적인 일시정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간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인봉으로 돌아가서 심판이 연이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우주의 해체라는 격변적인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니라. 이제 침묵은 8과 9에서 곧 일어날 다음 심판 이전에 행동을 유예하거나 일시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숨을 고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에 올 예정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며 여기서는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른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1번은 또는 2번입니다. 1번은 동작의 극적인 일시 중지입니다. 2번은 침묵이 침묵일 수 있으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소개했지만 그들은 몇 구절 동안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단으로 올라가서 자기 대야와 향로를 제단의 솟이나 유감스럽게도 제단의 향으로 채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곧 따라올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야 한다는 주제를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녹서 1장, 특히 에스라 4장에서 읽은 본문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항상 고통받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드러지는 기도입니다. 돌아가서 6장,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오 주님, 언제까지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가 들리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8장과 9장의 나머지 심판이 특히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구약에서 침묵이 종종 다가올 심판을 기대하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개입이 심판의 형태로 임합니다. 침묵은 다가올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인은 장차 올 심판, 즉 8장과 9장이 될 수 있는 나팔 심판 때문에 잠잠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8장에 이미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는 일련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게도 8장에서는 마지막 인인 6장에서 우주가 해체되는 형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를 가리우라”고 했습니다. 8장에서 일곱째 인은 이제 우리를 주의 날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성도의 기도인 향을 담은 후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아마도 옹호의 부르짖음, 성도들이 복수를 받고, 그들의 피가 복수되고, 그들이 정당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제단으로 가서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지는데 이는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다시 저자가 구약성서에서 선택한 심판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천둥소리와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함께 일곱째 인의 내용일 수 있다. 일곱째 인이 떴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장면이 잠시 중단되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은 불이 땅에 던져지는 것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의 형태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침내 다시 주님의 날과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에 관해 몇 가지 다른 점을 언급하자면, 실제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하늘 보좌실이 성전으로 묘사된 모든 성전 이미지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분명히 장면은 다시 바뀌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마도 요한이 7장에서 여전히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7장은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무리를 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의 관점에서 천사를 성전인 하늘의 맥락에서 봅니다. 여기서도 구약의 향단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단을 주목하십시오. 향로는 성전의 기구 중 하나였으며 불과 숯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성전으로 묘사된 천국의 그림과 아마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주요 목표는 성도들의 기도, 즉 아마도 정의와 복수 또는 신원을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부여되는 일곱째 인의 최종 심판에도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침묵과 함께 5절은 인의 숫자 7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4절에서 계속되는 하늘 법정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주목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계시록의 개요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이런 유형의 장소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8장 1-5장은 실제로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과 겹치게 됩니다. 5절이 일곱째 인의 내용 중 일부라면, 2절에서는 이미 소개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3-5절은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단에서 솟의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쏟을 준비를 하는 인봉 7번의 내용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일곱 천사는 2장에서 소개되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6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연동을 갖게 됩니다. 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연동 기능이라고 부르며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한 섹션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로 맞물리고 겹치는 섹션이 있는 동시에 다른 섹션은 이제 막 시작되어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인 6과 인 7을 방해하는 막간과 나중에 나팔 6과 7을 방해하는 막간을 포함하여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막간, 즉 요한계시록의 서로 얽힌 특징으로 인해 계시록의 쉽고 정확한 개요를 생각해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말했듯이 인장과 나팔에서 볼 수 있듯이 순서를 방해하는 막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 이제 일곱 인이 떼어졌으니 아마도 그 내용은 침묵일 것이고 또한 5절의 심판일 것이므로 저자는 주의 날인 5절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나팔의 형태로 또 다른 일련의 심판을 뒷받침하고 설명합니다. 6장에서는 미안해요, 8장에서는 6절부터 시작해서 장 끝, 그리고 다시 9장에

일곱 나팔이 소개되고, 각 나팔이 불 때마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바다.

그리고 또한 이 나팔 중 하나에서 하늘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9장이 트럼펫 순서를 계속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세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8장은 처음 네 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네 나팔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 나팔은 13절에서 천사나 독수리가 말하는 삼중 화로 소개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고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는 독수리를 소개하는데, 그는 삼겹의 화를 내는데, 그는 그것이 다음 세 나팔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 나팔 중 두 개는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팔 5와 6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일곱째 나팔인데, 이는 아마도 셋째 화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것을 따르고 있다면 8장은 마지막 세 나팔에 해당하는 세 가지 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팔 5번과 6번은 화 1과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화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팔 7번은 10장과 11장의 많은 부분으로 구성된 막간에 의해 6번과 분리됩니다. 11장 15-19절에서 우리는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독수리가 우리에게 여기에 소개하는 세 번째 화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트럼펫을 좀 더 자세히 또는 가능한 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설명과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상징적 성격과 사용되는 언어를 고려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약간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펫이 수반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지적해야 할 중요한 점은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것을 읽을 때, 이 나팔 재앙을 주의 깊게 읽을 때 수많은 주석이 지적한 것처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차트 형태로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것은 출애굽의 재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읽을 때,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순서는 아니지만 출애굽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은 완전함, 충만함,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 숫자 7을 사용합니다. 완전함, 완전함, 이 시간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수입입니다. 다른 숫자 외에 John은 숫자 7을 다른 순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집트에 쏟아진 재앙 중 하나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읽어 보면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재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우박 재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피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을 마시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별자리를 어둡게 하는 일인데, 낮의 셋째 날도 어두웠는데, 이는 이집트의 재앙 중 하나와 비슷했습니다.

나중에 9장에서 우리는 구약성서의 배경이 하나 이상인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적어도 하나는 이집트 재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John이 신중하게 모델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John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묵시록에서는 종종 출애굽기의 재앙 이미지를 활용하여 종말의 심판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출애굽기의 재앙을 분명히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의 요점은 일련의 정확한 판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이 출애굽기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이제 재앙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재림으로 이어지는 로마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번에도 요한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출애굽기의 재앙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그것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보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 요점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일련의 특정한 미래 판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서막으로 사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압제적인 나라인 애굽 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악하고 사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로마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시록 21장의 새 창조가 되는 유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서곡으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나라 22. 따라서 이것의 주요 요점은 출애굽 모티브를 불러일으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보일지 추측하게 하지 않고 이 3분의 1을 모두 합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3분의 1이 해를 입거나 지구 표면의 상당 부분이 물과 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요한의 요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도록 불러일으켜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억압적인 악한 제국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와 연결되고 우리의 관심을 다시 끌게 함으로써 출애굽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의 전주곡으로 억압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악하고 신이 없는 제국을 다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이미 또 다른 출애굽기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제사장 왕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제사장 왕국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억압적인 사악한 제국에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상속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출애굽과의 연관성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논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나팔 재앙이 8장뿐만 아니라 9장에서도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13회기 요한계시록 7장의 군중과 8장 마지막 인봉입니다.